14%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 과잉 대표한다!

한국 사회 내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이념 갈등'이 꼽힐 만큼, 최근 정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 속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넘버즈 292호〉는 성도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데이터연구소·문화선교연구원·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한 '기독교인의 정치의식 지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 이념 성향의 분포와 형성 배경, 정치적 언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목회자의 영향력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조사 결과, 매우 강한 보수, 즉 극우 비율은 성도 14%, 목회자 13%로 7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사실상 14%의 기독교 내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보고서가 한국 교회가 정치 앞에서 더욱 성숙하게 반응하고, 갈등을 넘어 연합과 돌봄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의식 지형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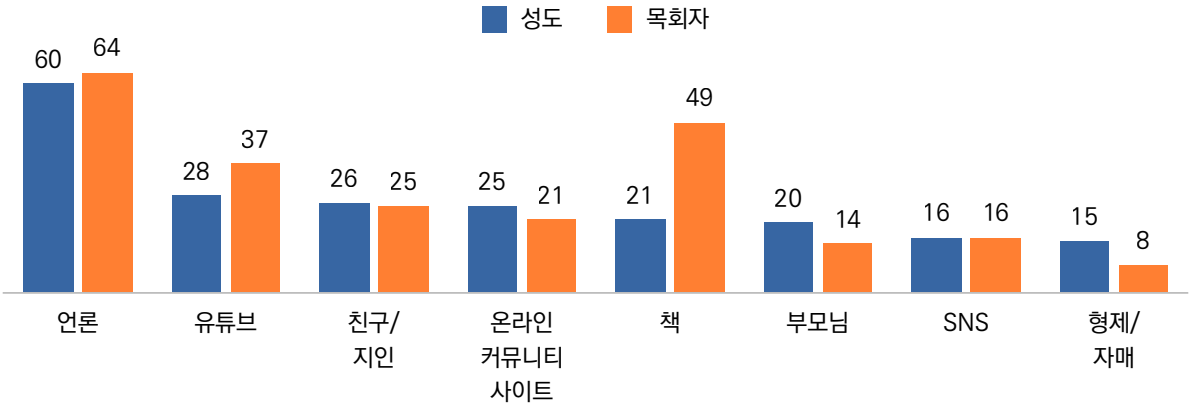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 분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기독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 온라인 조사가 어려운 70세 이상 일부는 종이 설문지를 통해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	모바일 조사(Mobile Survey)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 림가중 부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4월 8일 ~ 4월 25일 (총 18일간)	2025년 4월 9일 ~ 4월 10일 (총 2일간)
조사 주체	문화선교연구원 / 한반도평화연구원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지앤컴리서치	

01 [정치 인식의 출발]
정치적 이념 형성, 목회자는 '책'의 영향 높게 나타나!

-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이념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있을까? 성도와 목회자(담임목사)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질문한 결과(1+2+3순위), 두 그룹 모두 '언론'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이후 요인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성도는 '유튜브' 28%, '친구/지인' 26%,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25% 등의 순이었고, 목회자는 '책' 49%, '유튜브' 37% 등의 순으로, 특히 책의 영향이 목회자들에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정치적 이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1+2+3순위, 상위 8개, %)



정치적 이념 형성, 극우만 유독 유튜브 영향 크게 받아!

- 이념 성향에 영향을 준 요인을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극우(매우 보수) 성향의 성도만 유독 '유튜브'의 영향이 높았고, 나머지 그룹은 '언론'을 가장 높게 꼽았다.

[표] '이념 성향별' 정치적 이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성도 기준, 1+2+3순위,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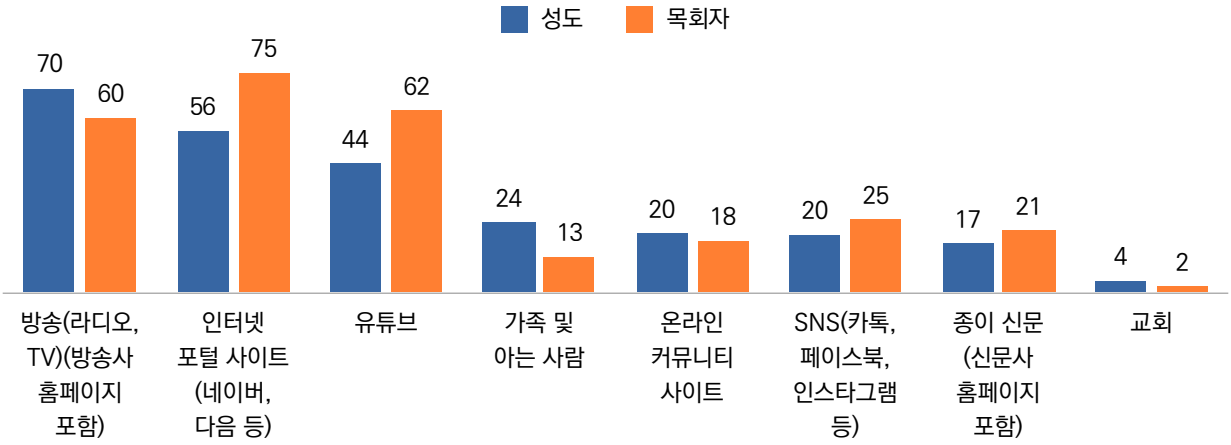
		언론	유튜브	친구/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책	부모님
전체		60	28	26	25	22	20
정치 이념 성향*	매우 보수(극우)	40	44	24	25	12	20
	보수	54	31	33	22	18	29
	중도	63	23	22	25	23	19
	진보	73	22	25	27	30	16
	매우 진보(극좌)	77	32	37	30	26	16

*정치 이념 성향 중 '매우 보수(극우)'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로 선택한 응답자 중 '2024년 1월 19일 서부지법 유치장 사태'를 국민저항권 행사로 인식한 경우로 분류하였고, '매우 진보(극좌)'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매우 진보로 선택한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류함.

정치 소식 습득 채널, 성도: 방송, 목회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최다!

- 평소 정치 소식/뉴스를 얻는 경로(1+2+3순위)에 대해 성도는 '방송'(70%)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56%, '유튜브' 44%, '가족 및 아는 사람' 24% 등의 순이었다.
- 목회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75%)가 1위였고, 다음으로 '유튜브' 62%, '방송' 60%, 'SNS'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회자가 성도보다 '인터넷'과 '유튜브' 경로가 높은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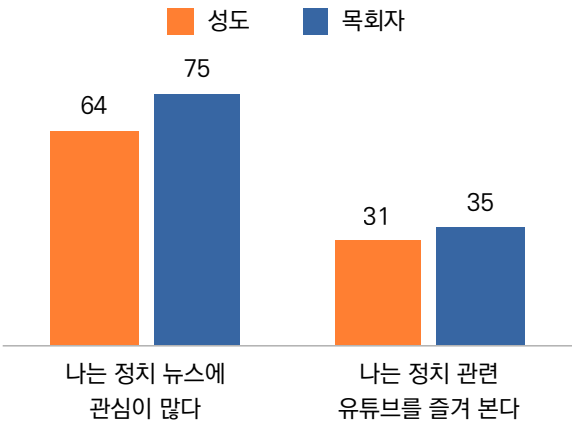
[그림] 정치 소식/뉴스 입수 경로 (1+2+3순위, 상위 8개, %)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높다!

-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 '정치 뉴스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성도는 64%, 목회자 75%로 목회자의 정치 뉴스 관심도가 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치 관련 유튜브를 즐겨 본다'는 항목에서도 성도(31%)보다 목회자(35%)가 다소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림] 정치 뉴스 관심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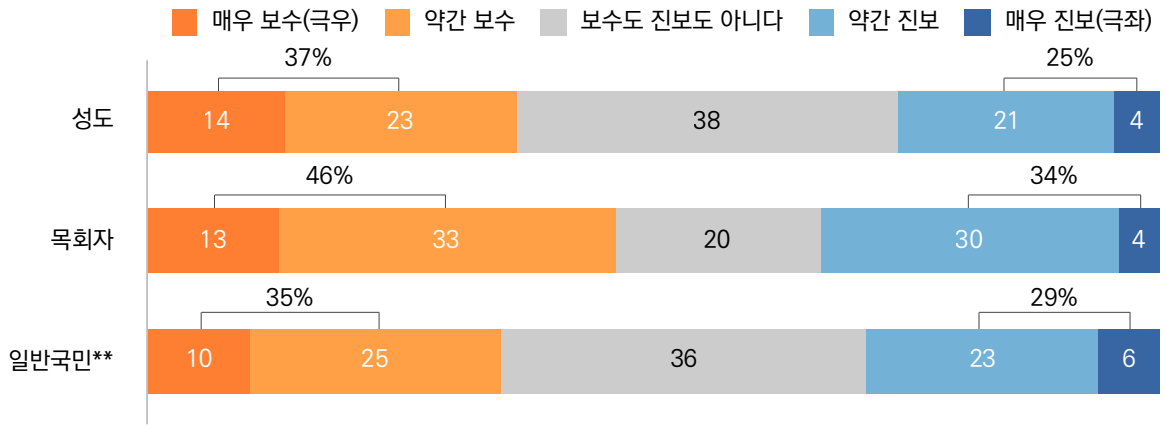


*4점 척도

02 [성도/목회자의 정치 성향]
극우 비율, 성도 14%, 목회자 13%!

- 먼저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성도와 목회자가 각각 체크하도록 한 후, 보수라고 응답한 경우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국민 저항권 vs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에 따라 '극우'(국민 저항권)와 '약간 보수'(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로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 성도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보수' 37%, '중도' 38%, '진보' 25%로 보수가 진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목회자는 '보수' 46%, '진보' 34%, '중도' 20%로, 일반 성도보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적고, 양쪽 보수와 진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 극우 비율은 성도 14%, 목회자 13%로 그다지 많지 않지만, 14%의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한편 일반국민의 이념 성향을 동일 시점 한국갤럽 조사 결과(2025.04)와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일반국민보다 보수 성향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도/목회자 이념 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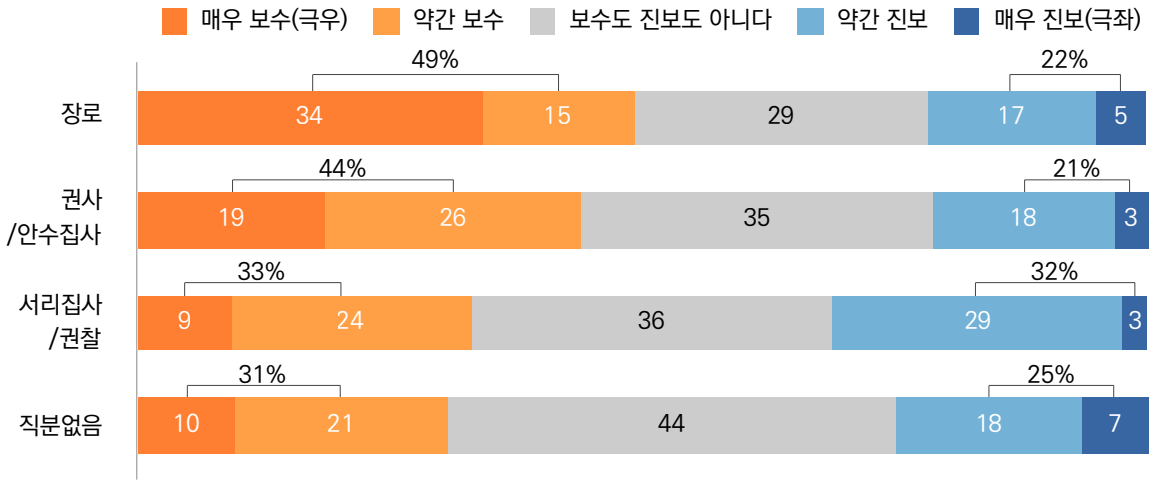


*정치 이념 성향 중 '매우 보수(극우)'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매우 보수+약간 보수)로 선택한 응답자 중 '2024년 1월 19일 서부지법 유치장 사태'를 국민저항권 행사로 인식한 경우로 분류하였고, '매우 진보(극좌)'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매우 진보로 선택한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류함.
**일반국민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21호(2025년 4월 통합), 2025.04.24.
Note) 일반국민 주관적 정치 성향 응답에서 '성향유보(모름/응답거절)'를 제외하고 100%으로 환산함

장로, 3명 중 1명 극우성향 보여!

- 직분별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장로'는 절반(49%)가량이 보수, '권사/안수집사'는 45%가 보수로, 권사/안수집사 이상 중직자 그룹은 절반 가까이가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 장로 중 극우 비율은 34%로 3명 중 1명꼴로 많았고, 안수집사/권사 중에서는 19%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그림] 직분별 이념 성향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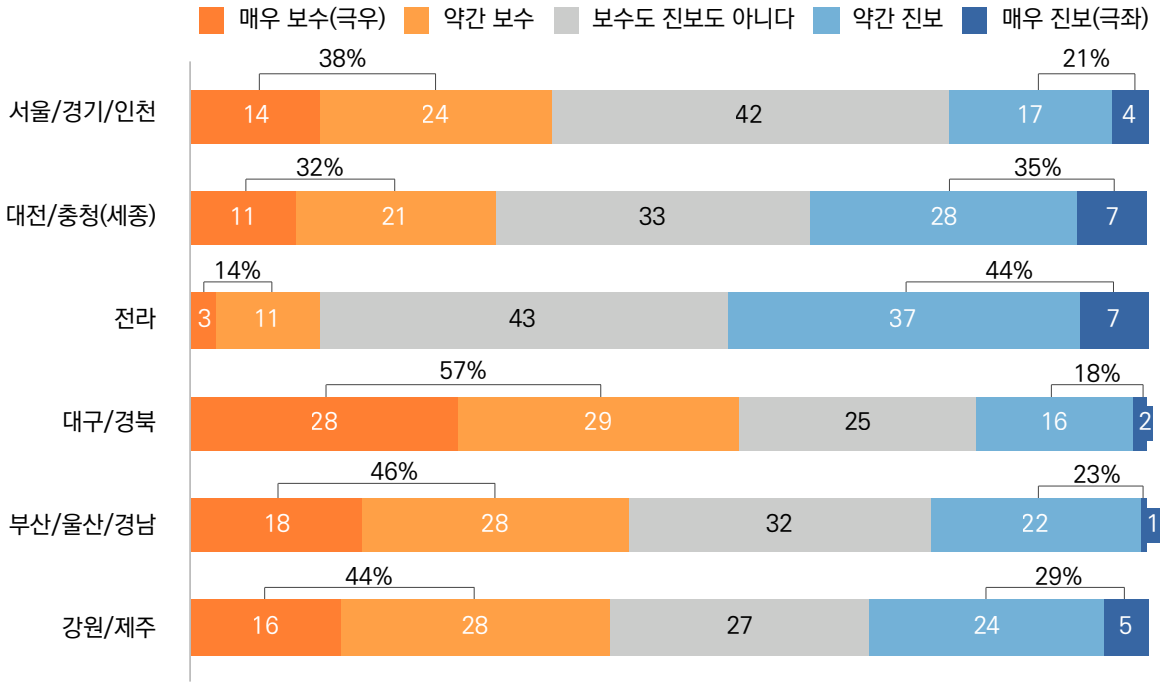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서울/수도권은 진보보다 보수가 우세!

- 지역별 성도들의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이 57%로 '보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46%)과 '강원/제주'(44%)도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극우 비율은 28%로 10명 중 3명 가까이 됐다. 한편 '서울/수도권'의 경우 '보수'(38%)가 '진보'(21%)보다 우세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지역별 이념 성향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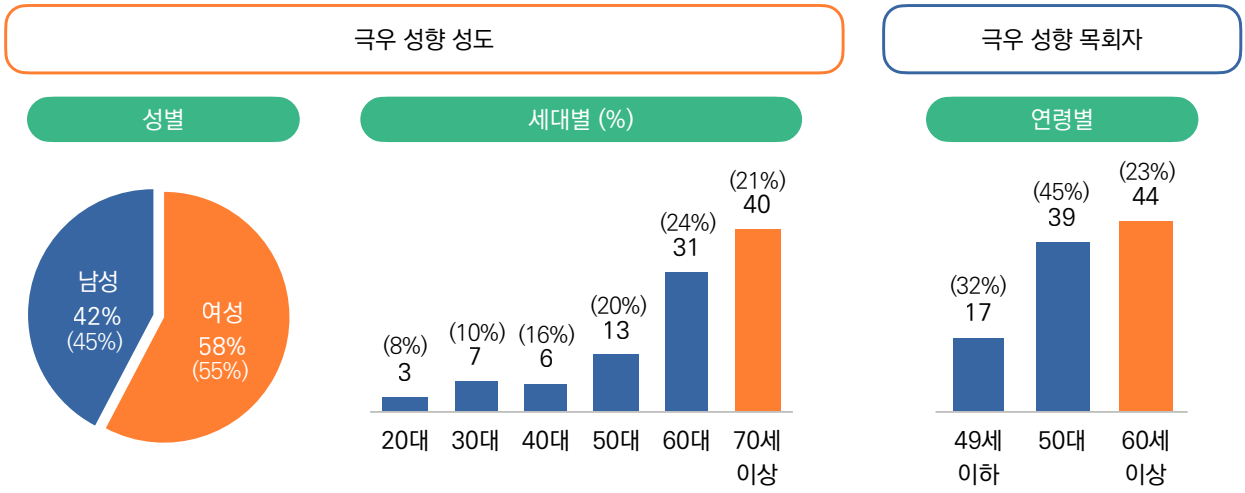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극우 성향 성도 중 71%가 60대 이상 고령층!

- 극우 성향 성도 전체를 100% 기준으로 인구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42%, '여성' 58%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31%)와 70세 이상(40%)이 전체의 71%를 차지해 고령층에서 높았으며, 20대는 3%에 불과했다.
- 이번에는 극우 목회자의 구성을 들여다보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4%로 절반에 육박했고, '50대' 39%, '49세 이하'는 17%였다.

[그림] 극우 성향 성도/목회자 분석 (인구 특성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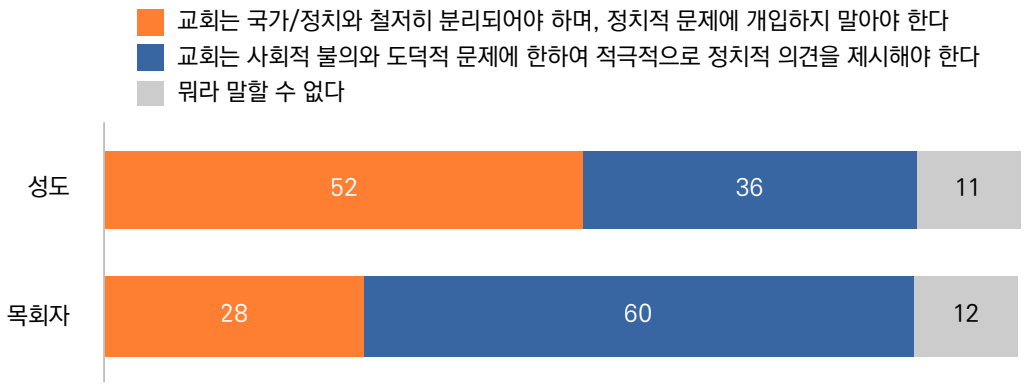


Note) (　　)안에 숫자는 성도/목회자 전체의 구성 비율임

03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의 정치 개입 의견, 성도: 불개입, 목회자: 적극적 개입!

- 교회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교회는 국가/정치와 철저히 분리되고,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성도 52%, 목회자 28%였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성도 36%, 목회자 60%로 두 집단 간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드러냈다. 즉, 성도는 불개입 성향이 우세, 목회자는 적극 개입 입장이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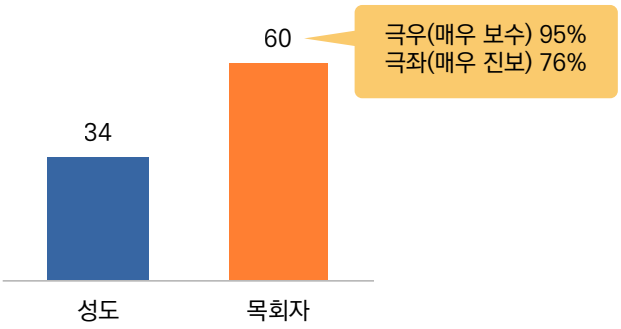
[그림]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의견 (%)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의견,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적극적!

-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 성도는 34%가 동의했고, 목회자는 60%가 동의해 목회자가 정치 참여에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목회자의 경우 이념 성향이 양 극단으로 갈수록 정치적 참여 적극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극우 95%, 극좌 76%)

[그림]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 ('동의 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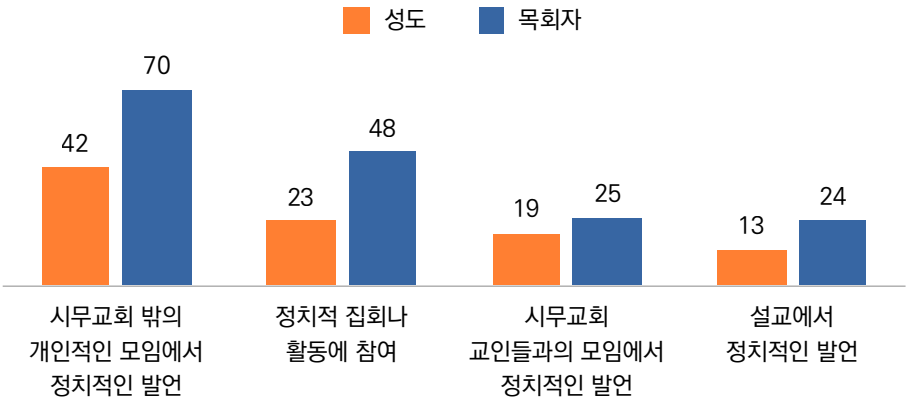


*4점 척도

04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과 영향]
성도,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행동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지를 성도와 목회자 각각에게 물어보았다.
- 먼저 성도는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행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즉 '개인적인 모임에서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동의율은 42%로 절반에 못 미쳤고, '시무교회 교인들과의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19%), '설교에서의 정치적인 발언'(13%)에 대한 동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 반면 목회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목회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체로 성도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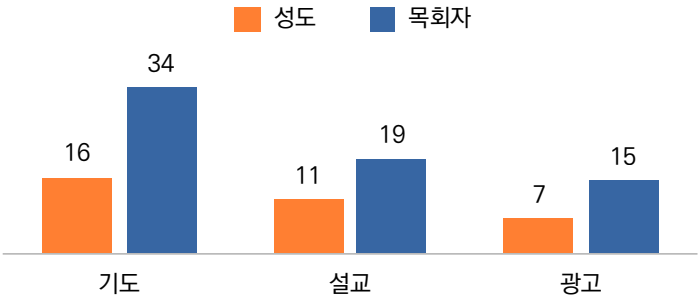
[그림] 목회자의 정치 발언 및 행동에 대한 수용도 ('허용할 수 있다' 비율, %)



목회자, 기도할 때 정치적인 발언 가장 많이 한다!

- 지난 1년간 교회에서 목회자의 정치 발언 및 집회 참석 권유를 경험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언제 이를 경험했는지 물은 결과, '기도 시간'이란 응답이 16%, '설교 시간' 11%, '광고 시간' 7%였다.
- 목회자에게도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 및 집회 참석을 언제 권유했는지 물었더니 '기도 시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목회자의 정치 발언 및 집회 참석 권유 실태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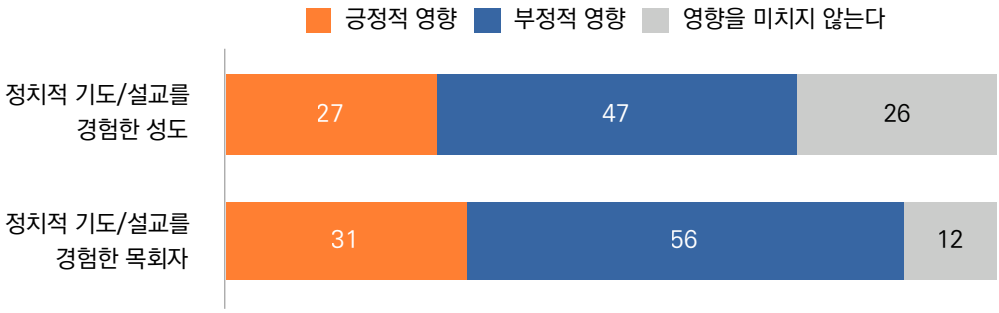


(질문)
· 성도 대상 : 귀하 교회에서 지난 1년간 담임목사님이 다음의 경우에 정치적인 발언 혹은 정치적 집회 참석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 목회자 대상 : 목사님은 교회에서 지난 1년간 다음의 경우에 정치적인 발언 혹은 정치적 집회 참석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적 설교/기도, 교회에 긍정보다는 '부정적 영향' 더 준다!

- 정치적 설교 및 기도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성도, 목회자 둘 다 긍정(성도 27%, 목회자 31%)보다는 부정적 영향(성도 47%, 목회자 56%)이 크다고 응답했고, 특히 목회자 그룹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성도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 이는 설교와 기도 속 정치적 메시지가 교회 공동체에 부담/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목회자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정치적 설교 및 기도가 교회에 주는 영향 (정치적 기도/설교 경험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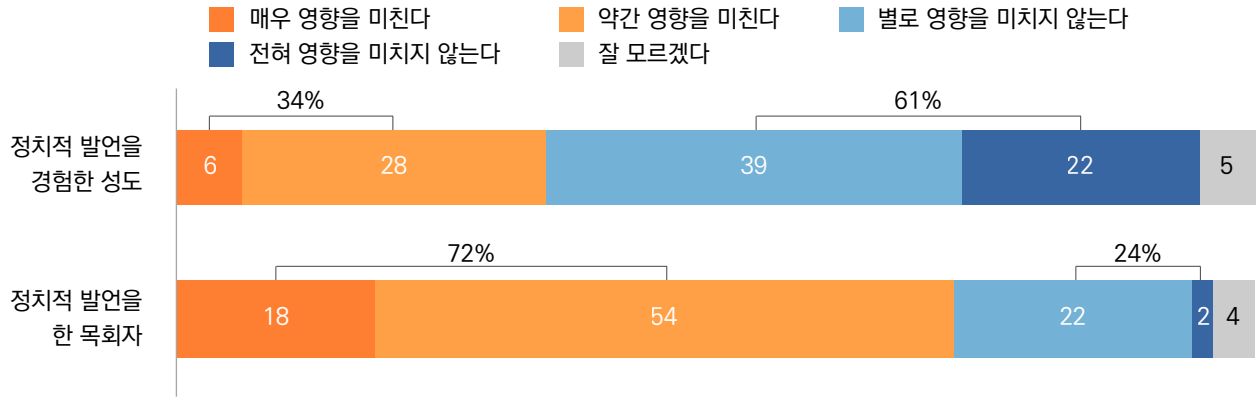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목회자, 교회 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해!

- 목회자가 하는 정치적 발언은 성도들의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성도들은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영향을 미친다'가 34%,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1%로,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을 듣고, 영향을 받는 이는 3명 중 1명꼴이었다.
- 반면, 목회자의 경우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성도들의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2%, '미치지 않는다' 24%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목회자가 자신의 정치적 발언의 영향력을 성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목회자가 하는 정치적 발언의 영향력* (정치적 발언을 경험한 교인/발언을 한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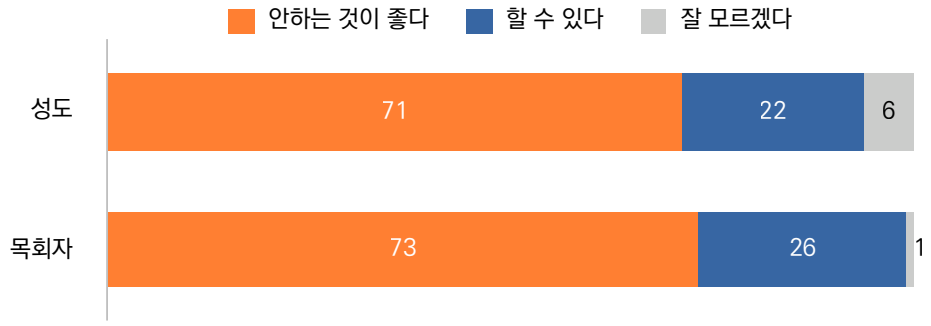


*4점 척도

05 [정치적 토론] 목회자·성도 10명 중 7명 이상, 성도 간 정치적 대화 자제해야!

- 교회 성도들끼리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성도와 목회자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할 수 있다'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교회 내 정치 논의에 대한 강한 거리두기 정서가 드러나는 데이터이다.

[그림] 성도 간 '정치적 대화'에 대한 찬반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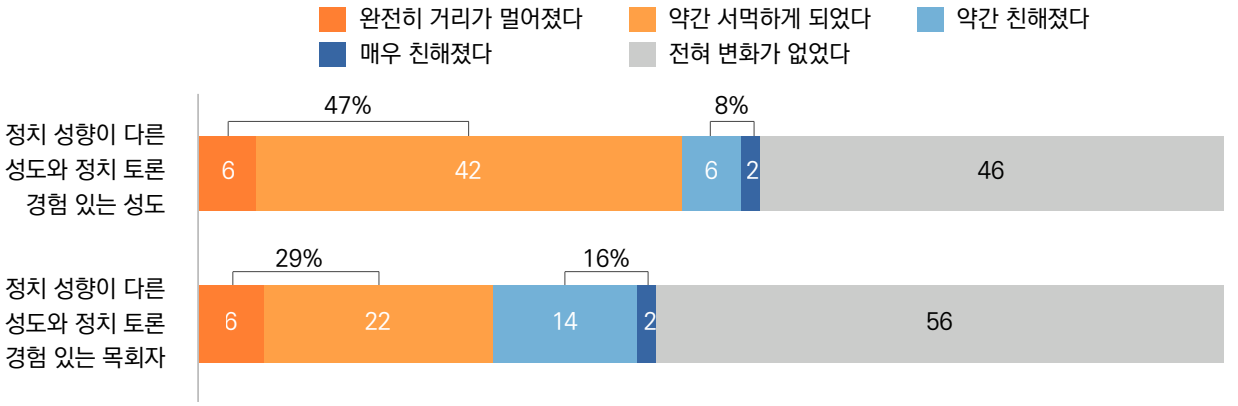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정치적 토론 후, 성도 절반 가까이는 관계 멀어졌다!

- 정치 성향이 다른 성도 또는 목회자와의 정치 토론 이후, 관계의 변화를 보면 성도의 47%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응답해, 성도 절반 가까이는 정치적 토론 이후 관계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회자는 29%가 '거리가 멀어졌다', 56%는 '변화가 없다', 16%는 '친해졌다'고 응답해, 목회자에서도 관계 악화 경험은 존재하지만, 성도보다 상대적으로 덜했다.
- 이는 정치적 토론이 교회 내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성도 그룹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정치 토론 후의 관계 변화* (정치 성향이 다른 성도와 정치 토론 경험 있는 자, %)



*5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14%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 과잉 대표한다!

- 성도의 정치적 주관적 이념 성향은 '보수' 37%, '중도' 38%, '진보' 25%로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회자는 '보수' 46%, '진보' 34%, '중도' 20%로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데, 성도와 비교하면 목회자가 성도보다 보수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극우 비율은 성도 14%, 목회자 13%로 그다지 많지 않지만, 대 사회적으로는 14%의 기독교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정치적 이념 형성, 극우만 유독 유튜브 영향 크게 받아!

- 이념 성향별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면, 극우 성향 성도만 유독 '유튜브'의 영향이 높았고, 나머지 그룹은 '언론'을 가장 높게 꼽았다.

3. 성도,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행동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는데, '개인적인 모임에서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동의율은 42%로 절반에도 못 미쳤고, '설교에서의 정치적인 발언'(13%)에 대한 동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 반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체로 성도보다 높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집] 한국 개신교의 정치문화 지형 조사 발표와 함의 (목회데이터연구소/문화선교연구원/한반도평화연구원)

관련 성경 구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이념 형성 과정이 세대·직분·이념 성향에 따라 매우 다층적이며,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목회자는 성도보다 정치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교회의 정치 개입에도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성도는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행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목회자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신하기보다 성도의 정치 감수성과 심리적 거리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치에 대한 설교나 기도, 정치적 집회 참여 권유 등은 공동체에 긍정보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 내 가급적 성도 간 정치적 발언/행동을 자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예배, 소그룹 등 목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주장보다는 성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균형있는 목회 리더십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갈등과 분열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하나 됨을 지켜가는 길이 될 것이다.